

#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아동의 TV 시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Family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Influencing adolescent TV use

김애정\*, 남종훈\*\*

Ae-ung Kim\*, Chong-Hoon Nam\*\*

### 요 약

본 논문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매체인 TV와 가족, 특히 아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는 주로 TV의 시청이 가족 또는 가족의 구성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TV의 시청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TV의 시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TV 프로그램 선호에 민감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의 유형과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라서 아동의 TV 시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between TV and family. While almost research has focused on the TV influencing family, this study has tried to contemplate family type and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influencing TV use. Especially, this research focused on adolescent TV use. The result and conclusion are as follow: There are different children's TV watching styles based o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conversation-orientation and conformity-orientation). The amount of TV watching is high in conformity-orientation family pattern, and the amount of TV watching is low in conversation-orientation family pattern. In addition, conformity-orientation family pattern more prefer entertainment program, while conversation-orientation family pattern prefer informational program.

Keywords : family type,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TV use, children's TV watching

### I. 서 론

최근 급속한 기술발달로 다양한 뉴미디어가 등장하였지만, TV는 여전히 그 중요성과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1]의 방송매체

이용형태조사에서도 조사대상 가구원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매체는 TV로 조사되었고, 그 중 83.9%가 거의 매일 TV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의 일원 중 아동들은 일상생활의 많은 시간을 TV와 함께 보내고 있다. 통계청 [2]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언론광고학과(Masscommunicatios&AD. Dept.,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Masscommunicatios&AD. Dept.,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제1저자 (First Author) : 김애정, · 교신저자 : 남종훈  
· 투고일자 : 2011년 11월 10일  
· 심사(수정)일자 : 2011년 11월 16일 (수정일자 : 2011년 12월 23일)  
· 게재일자 : 2011년 12월 30일

면 초등학교 재학 아동)의 방과 후 놀이방법의 조사 결과 컴퓨터게임·인터넷(65.3%)보다 TV·비디오시청(69.4%)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는 다른 매체에 비해 수용이 용이하고 일상화되어 있기에 아동이 받아들이기 쉽고, 또 이는 아동의 행동발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3].

지금까지 TV와 아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TV, 즉 TV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5]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간혹 어린이의 TV시청형태에 따른 편성전략에 관한 연구 [6] 또는 한국 어린이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7] 등이 있었다. 즉 주로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인 성·연령·학력·소득수준 등을 이용하여 아동의 TV시청 형태를 설명하거나 편성과 프로그램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TV시청이 주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아동은 행동발달과 생활패턴 등의 특성상 주로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가의 상당부분을 TV시청에 할애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TV시청은 가정 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가정은 가족구성원을 기본단위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 가정의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 즉, 가족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특성에 따라서 가족의 유형이 달라지고 또 가족의 유형에 따라서 아동의 TV시청형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커뮤니케이션의 패턴이 아동의 TV 시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는 것이다. 맥클라우드와 앳킨, 채피 [8]는 횡적 종적 관계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패턴(FCB: Family Communication Pattern)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개념지향적(concept-oriented)인 가족은 모든 가족구성원이 서로서로 보살펴주고, 토론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며, 때론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가장 적합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패턴이다. 사회지향적(socio-oriented)인 가족은 모든 가족구성원이 논쟁을 피하고 모두에게 합치되는 지향점을 추구하며 가족 안에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추구한다 [9]. 한편 리치 [25]는 개념지향적, 사회지향적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보완하여 대화지향(conversation-orientation)과 순응지향(conformity-orientation)의 수정된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The Revised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 RFCP)을 개발하였으며, 아울러 대화지향, 순응지향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바탕으로 다시 가족 유형을 협의형 가족, 다원형 가족, 권위형 가족, 방임형 가족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그림1. 참고).

		순응지향	
		높음	낮음
대화지향	높음	협의형	다원형
	낮음	권위형	방임형

그림 1. 가족 유형  
Fig. 1. Family type

## II. 이론적 배경

### 2-1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과 가족유형

가족커뮤니케이션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온 가족 커뮤니케이션구조의 유형화는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된다. 첫째는 횡적인 결혼관계를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고, 둘째는 종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강조하

협의형 가족은 대화지향과 순응지향 모두 평균이상인 가족으로 자녀는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공개적인토론과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되지만 부모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또한 부모는 자신들의 결정을 자녀들에게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원형 가족은 대화지향은 평균이상이고 순응지향은 평균이하인 가족으로 부모와

1) UN의 아동권리협약(1989)은 18세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며,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인 자(제 2조 제1호)로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만12세까지로 설정한다.

자녀가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도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며, 제한 없는 토론을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권위형 가족은 대화지향은 평균이하이지만 순응지향이 평균이상인 가족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강조하며, 부모와 논쟁이 될 주제는 거의 접할 기회가 없으며 자녀는 부모와 일치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방임형 가족은 대화지향과 순응지향 모두 평균이하인 가족으로 부모와 자녀가 제한된 주제에 대해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접촉이 없으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부모에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RFCP를 적용한 리치와 피츠패트릭 [26]의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시 발달적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구성원 간 의사소통 유형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 이슈를 반영하여 아동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가족 의사소통 환경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일터와 가정의 의사소통 유형 간 관련성을 분석한 리치의 또 다른 연구 [13]에서는 대화지향 부모는 일터 의사소통시 개방성 및 자율성 정도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순응지향 부모는 부적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나타났다. 이밖에 RFCP를 활용한 연구들로는 한·미 대학생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과 부모와의 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구 [14],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 이용, 가족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대한 연구 [15], 가족 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 통제성 및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16], 가족형태 및 가족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이동전화 조정경험 차이 분석 등이 있다.

## 2-2. 가족 유형과 TV 시청

현대 사회 가족의 기능과 결속력은 전통 사회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으나, 가족은 여전히 개인에게는 1차적 준거집단으로 기능하고 있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며, 사회 각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 제도이다. 특히 한국의 가족은 서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의미를

가져, 가족의 구성원리가 과거에 비해 약화된 측면이 있음에도 여전히 개인 일상뿐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 용해되어 막강한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다 [17],[18],[19],[20],[21]. 따라서 가족내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TV나 전화 등도 여전히 주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릴 [22]에 의하면 가족구성원들의 TV프로그램공동시청은 웃음, 눈물, 분노, 지적 자극 등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 TV시청은 가족들이 즐기는 여러 활동 중의 하나이며, TV는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며 가족구성원은 TV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만이 아닌 가족구성원과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TV를 본다는 것이다. 한편, 맥클라우드 [8]는 사회지향 또는 순응지향에 속하는 가족의 부모와 아동들은 TV시청량이 많은 반면, 뉴스시청에 소비하는 시간은 적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지향에 속하는 아동은 TV폭력물 시청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운 [23]은 사회지향성(순응지향)과 개념지향성(대화지향)의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도입하여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텔레비전의 사회적 이용양식과 시청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사회지향적(순응지향)가족에 비해 개념지향적(대화지향)가족이 텔레비전 시청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순화 [9]는 가족커뮤니케이션 유형이 가정 내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고등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시청량과 정보적·오락적 프로그램 선호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순응지향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권위형이 시청량이 가장 높았고, 대화지향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다원형이 가장 낮은 시청량을 나타내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II. 연구문제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인 대화지향성과 순응지향성을 사용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화지향적인 가족에서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시청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순응지향적인 가족은 대화지향 가족보다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24]. 이를 바탕으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가족 환경 안에서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른 아동의 TV 행태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1과 2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라 아동의 TV시청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1-1: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라 아동의 TV시청량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1-2: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라 아동의 TV프로그램 선호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2: 가족 유형(협의, 다원, 권의, 방임)에 따라 아동의 TV시청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2-1: 가족 유형(협의, 다원, 권의, 방임)에 따라 아동의 TV시청량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2-2: 가족 유형(협의, 다원, 권의, 방임)에 따라 아동의 TV프로그램 선호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IV.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 총4개 교육청(남부 달성, 동부, 서부)소재의 초등학교를 각 1개교씩 선정하였다.<sup>2)</sup>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의 따라 형식적 조작단계<sup>3)</sup>인 13살 6학년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을 했다고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91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문헌연구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자가 측정항목 구성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서 본 조사가 있기 한 달 전에 초등학교 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설문지 결과 가족 커뮤니케이션상황을 묻는 질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발견되어 본 조사에서는 몇 가지 쉬운 용어로 바꾸어 수정하고 보완과정을 거쳐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4점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설문대상인 아동이 실제로 정적인 감정이나 부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쉽게 “보통이다”에 반응해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 가지 반응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타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위함이었다.

회수된 설문지들은 SPSS15.0 통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빈도분석, T-검증,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사용하였고, 모든 통계의 유의도는  $p < .05$  수준으로 검증하였다.

#### V. 조작적 정의

##### 5-1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

리치 [25]가 1991년 발표한 수정된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The Revised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 RFCP)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척도는 총 26항목으로 15항목은 대화지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11항목은 순응지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화지향은 부모에게 생각이나 느낌을 공개적으로 교환하고 대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측면을 측정한다.

순응지향은 부모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모의 권위를 행사하는 측면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대화지향 척도의 경우 Cronbach's  $\alpha = 0.93$ 이고, 순응지향 척도의 경우 Cronbach's  $\alpha = 0.89$ 로, 이 척도는 매우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2 가족 유형

가족 유형을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의 대화지향

2) 대구광역시 남부H초등학교 50명, 달성H초등학교 50명, 동부D초등학교 50명, 서부S초등학교 50명 총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가장 완성된 인지적 조작을 할 수 있는 단계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넘어서 마음속에만 있는 추상적 사상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사고가능하다.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은 가능성과 이상적 상황에 대하여 사고 할 수 있으며, 과학자와 유사한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이옥형, 2002). 앳킨(Atkin, 1991)은 10-12세에 텔레비전의 시청량이 정점을 이룬다고 하였다.

성과 순응지향성의 평균<sup>4)</sup>을 기준으로 협의, 다원, 권위, 방임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협의형 가족은 대화지향성과 순응지향성 모두 평균이상인 가족을 말하며, 다원적 가족은 대화지향성은 평균이상이나 순응지향이 평균이하인 가족이고, 권위형 가족은 대화지향성이 평균이하이지만 순응지향성이 평균이상인 가족이며, 방임형 가족은 대화지향성과 순응지향성 모두 평균이하인 가족을 말한다.

5-3 TV시청

5-3-1 시청량

2009년 방송매체이용형태조사의 기준으로 텔레비전 시청량은 평일(월요일~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3개 항목의 응답을 합산한 후 평균을 계산하여 TV시청량의 지수로 삼았다.

5-3-2 프로그램 선호도

2009년 방송매체이용형태조사의 TV시청형태조사의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시청 시 우리가족이 함께 TV를 볼 때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설문하였다. 설문된 프로그램은 정보적 프로그램과 오락적 프로그램으로 총 11개 항목에서 정보적 프로그램 6개 항목, 오락적 프로그램 5개 항목(표1 참고)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각각의 항목을 합산한 후 평균을 계산하여 프로그램선호도를 지수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정보적 프로그램의 경우 Cronbach's  $\alpha=0.82$ 이고, 오락적 프로그램의 경우 Cronbach's  $\alpha=0.75$ 로, 이 척도는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TV프로그램 유형  
Table. 1. TV program type

정보적 프로그램	오락적 프로그램
뉴스 및 보도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대담/토론	스포츠
교양 및 생활정보	음악/쇼/토크쇼
문화예술	코미디/시트콤
학습/퀴즈	

VI. 연구결과

6-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 연구의 응답자는 아동, 즉 초등학교 6학년집단으로 전체응답자191명 중 남자99명(51.8%), 여자92명(48.2%)로 표집 되었다. 가족 수는 2명에서부터 7명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2명의 가족 1명(0.5%), 3명의 가족 22명(11.5%), 4명의 가족 134명(70.2%), 5명의 가족 29명(15.2%), 6명의 가족 4명(2.1%), 7명의 가족 1명(0.5%)이었다.

또, TV 시청량은 평일 2시간44분, 토요일 3시간32분, 일요일 3시간57분으로 아동의 평균 TV 시청량은 3시간11분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TV프로그램선호도는 정보적 프로그램 2.49%, 오락적 프로그램 2.70%로 나타났다.

6-2 연구결과 분석

연구문제1은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른 아동의 TV시청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화지향과 순응지향에 있어서 TV시청량과 TV프로그램선호도에 어떠한 차이가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2.54이며 대화지향 평균은 2.89이고, 순응지향 평균은 2.20이었다.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인 대화지향과 순응지향 항목점수의 평균이 높은 패턴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의 TV평균시청량은 3시간 11분이고, 아동의 TV프로그램선호도는 정보적 프로그램 2.49, 오락적 프로그램 2.70로 오락적 프로그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1을 해결하기위한, 구체적 연구문제인 연구문제1-1은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른 아동의 TV시청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T-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대화지향; M=2.32, 순응지향; M=5.33)에 따라 순응지향 가족은 TV시청량이 높고, 대화지향 가족은 TV시청

4) 본 연구에서 아동의 대화지향 평균은 2.89이었으며, 순응지향 평균은 2.20이었다.

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 ( $T=-13.60, p<.001$ )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2.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른 아동의 TV시청량  
Table 2. The amount of adolescent TV use based o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값
대화지향	141	2.32	1.23	13.60***
순응지향	50	5.33	1.63	

\* $P<.05$ , \*\* $P<.01$ , \*\*\* $P<.001$  이하 표에서 동일함

다음으로 연구문제1-2는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른 아동의 TV프로그램선호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대화지향,  $M=2.75$ , 순응지향,  $M=1.77$ )에 따라 정보적 프로그램은 대화지향가족이 순응지향가족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 $T=11.27, p<.001$ )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대화지향,  $M=2.46$ , 순응지향,  $M=3.39$ )에 따라 오락적 프로그램은 순응지향가족이 대화지향가족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차이( $T=-10.43, p<.001$ )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연구문제1-2는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라 아동의 TV프로그램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른 아동의 TV 프로그램 선호도

Table 3. The program preference of adolescent TV use based o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가족커뮤니케이션패턴	TV 프로그램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값
대화지향	정보적 프로그램	141	2.75	0.55	11.27***
순응지향		50	1.77	0.44	
대화지향	오락적 프로그램	141	2.46	0.59	-10.43**
순응지향		50	3.39	0.35	

연구문제2는 가족 유형에 따른 아동의 TV시청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대화지향, 순응지향)을 바탕으로 협의형, 다원형, 권위형, 방임형의 4가지 가족 유형에 따라 TV시청량과

TV프로그램선호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가족 유형을 대화지향 2.89와 순응지향 2.20의 각 평균값을 기준으로 협의형, 다원형, 권위형, 방임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대화지향인 경우 평균값 2.89를 기준으로 191명의 표본을 이분화 하였는데 그 결과 상위집단 101(52.9)명, 하위집단 90(47.1)명이었다. 순응지향인 경우 평균값인 2.20을 기준으로 표본을 이분화 한 결과 상위집단 87(45.5)명, 하위집단104(54.5)명이었다.

대화지향과 순응지향이 모두 평균이상인 협의형은 24(12.6)명, 대화지향은 평균이상이고 순응지향은 평균이하인 다원형은 77(40.3)명, 순응지향은 평균이상이고 대화지향은 평균이하인 권위형은 63(33)명, 대화지향과 순응지향 모두 평균이하인 방임형은 27(14.1)명으로 다원형, 권위형, 방임형, 협의형으로 분포하였다. (그림2. 참고)



그림 2. 가족 유형 유형화 결과  
Fig. 2. The result of family types

연구문제2를 해결하기위한, 연구문제2-1은 가족 유형에 따라 아동의 TV시청량에 어떠한 차이가 보이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는데, 가족 유형(협의형;  $M=3.68$ , 다원형;  $M=1.66$ , 권위형;  $M=4.69$  방임형;  $M=3.04$ )에 따라 아동의TV 시청량은 권위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협의형, 그리고 방임형이었다. 가장 낮은 TV 시청량을 보인 가족 유형은 다원형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 $F=58.46, p<.001$ )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4. 참고)

표 4. 가족 유형에 따른 아동의 TV시청량

Table 4. The amount of adolescent TV use based on family types

가족 유형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F값
협의형 가족	24	3.68	2.08	58.46***
다원형 가족	77	1.66	0.56	
권위형 가족	63	4.69	1.67	
방임형 가족	27	3.04	1.40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가족 유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협의형 가족은 다원형과 권위형 사이에서, 다원형 가족은 협의형과 권위형 그리고 방임형 사이에서, 권위형 가족은 협의형과 다원형 그리고 방임형 사이에서, 방임형 가족은 다원형과 권위형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표 5. 사후검증

Table 5. LSD

시청량	협의형	다원형	권위형	방임형
협의형		***	**	
다원형	***		***	***
권위형	**	***		***
방임형		***	***	

다음으로 연구문제2-2는 가족 유형에 따른 아동의 TV프로그램선호도에 어떠한 차이가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는데, 가족 유형(협의형; M=2.48, 다원형; M=3.05, 권위형; M=1.87 방임형; M=2.38)에 따라 정보적 프로그램은 다원형, 협의형, 방임형, 권위형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F=77.65, p<.001)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 가족 유형(협의형; M=3.06, 다원형; M=2.18, 권위형; M=3.25 방임형; M=2.57)에 따라 오락적 프로그램은 권위형, 협의형, 방임형, 다원형의 순서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F=58.46, p<.001)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6. 참고).

표 6. 가족 유형에 따른 아동의 TV프로그램선호도

Table 6. The program preference of adolescent TV use based on family types

가족 유형	TV 프로그램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F값
협의형	정보적 프로그램	24	2.48	0.47	77.65***
		77	3.05	0.38	
		63	1.87	0.48	
		27	2.38	0.58	
다원형	오락적 프로그램	24	3.06	0.44	61.51***
		77	2.18	0.47	
		63	3.25	0.47	
		27	2.57	0.59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가족 유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 정보적 프로그램선호도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락적 프로그램선호도에서는 협의형 가족은 다원형과 방임형 사이에서, 다원형 가족은 협의형과 권위형 그리고 방임형 사이에서, 권위형 가족은 다원형과 방임형 사이에서, 방임형 가족은 협의형과 다원형 그리고 권위형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고).

표 7. 사후검증

Table 7. LSD

정보적 프로그램	협의형	다원형	권위형	방임형
협의형		***	***	***
다원형	***		***	***
권위형	***	***		***
방임형	***	***	***	

오락적 프로그램	협의형	다원형	권위형	방임형
협의형		***		***
다원형	***		***	***
권위형		***		***
방임형	***	***	***	

## VII.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인간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가족 안에서 성장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남편과 부인,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단위를 의미한다. 이 같은 정의는 가족이 혈연이나 결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전통적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또 가족은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회체계이기도 하다. 커뮤니케이션 또한 관계를 만들고, 지속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한다면 가족은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되는 최초의 집단 또는 사회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는 가족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변해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유형 또는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따라 아동의 TV시청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려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이론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총4개 교육청(남부 달성, 동부, 서부)소재의 초등학교를 각 1개교씩 선정하였다. 설문대상은 6학년 19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학생이 99명(51.8%), 여학생이 92명(48.2%) 이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진행된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은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대화지향, 순응지향)에 따라 아동의 TV시청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순응지향적인 가족의 아동의 TV 시청량은 높았고 대화지향적인 가족의 아동의 TV 시청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V프로그램 선호도에서는 순응지향적인 가족은 오락적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대화지향적인 가족은 정보적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2는 가족 유형(협의형, 다원형, 권위형, 방임형)에 따라 아동의 TV시청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TV시청량과 TV프로그램선호도에 어떠한 차이가 보이는지를 One way ANOVA을 통해 검정한 결과 TV 시청량은 권위형, 협의형, 방임형, 다원형의 순으로 나타났고, TV프로그램 선호도에서는 정보적 프로그램은 다원형, 협의형, 방임형, 권위형 순으로, 오락적 프로그램은 권위형, 협의형, 방임형,

다원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순응지향을 강조하는 권위형 가족 유형의 아동은 TV의 시청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오락적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반면에 대화지향을 강조하는 다원형 가족 유형의 아동은 TV의 시청량은 낮았지만 정보적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흔히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TV가 가족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에서 탈피하여 가족의 환경, 즉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과 가족 유형에 따라 TV의 시청의 행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주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가족 커뮤니케이션과 TV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4개의 교육청(남부, 달성, 동부, 서부)중 1개교를 무작위표집을 사용하여 2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나, 이는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 본 연구의 결과를 좀 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TV시청과 관련하여 TV 시청량과 프로그램선호도뿐 아니라 아동의 TV시청과 관련한 변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측정과 관련하여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과 가족 유형을 외국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인 용하여 그대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가족커뮤니케이션 연구들에서도 논의되어왔던 점으로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가족커뮤니케이션 유형화를 형성하여 보다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층적 접근을 통해서 보다 유용한 연구가 되도록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 [2]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3] 채수영, 지상파 TV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6
- [4] 박수현, "초등학생들의 TV 프로그램 시청현황과 그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03
- [5] 박지인, "아동의 TV 시청 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0
- [6] 김차근, "어린이의 TV 시청형태에 따른 편성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7] 최광주, "한국 어린이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4
- [8] McLeod, Atkin, & Chaffee, "Adolescents Parents and TV Use" Self-report and Other-report Measures from The Wisconsin Sample. in G. A. Comstock and Runinstein(Eds.), TV and Social Behavior, Washington, D. C., ;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76. 1972
- [9] 방순화, "가족커뮤니케이션유형이 가정 내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5
- [10] McLeod, J., & Chaffee, S.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In J. Tedeschi. (Ed.), The social influence process pp. 50-59), Chicago: Aldine-Atherton. 1972
- [11]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 [12] Fitzpatrick, M. A., Marshall, L. J., Leutwiler, T. J. & Krcmar, M. "The effect of family communication environments on children's social behavior during middle childhood." *Communication Research*, 23(4), pp. 379-406. 1996.
- [13] Ritchie, L. D. "Parents' workplace experiences and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Communication Research*, 24(2), pp. 175-187. 1997.
- [14] 김병길, "한미대학생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과 부모와의 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4, pp. 95-125, 2010.
- [15] 조윤경,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 이용, 그리고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54(2), pp. 200-231. 2010.
- [16] 한주리, 허경호, "가족 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 존중감, 자아노출, 내적통제성 및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9(5), pp. 202-227. 2005.
- [17] 김혜영, "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한국사회* 9(2), pp. 55-94. 2008.
- [18] 안호용, 김홍주, "한국 가족변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사회* 3(1), pp. 89-132. 2000.
- [19] 이영자, "가부장제 가족의 자본주의적 재구성," 현상과 인식, 가을호, pp. 72-94. 2007.
- [20] 장경섭,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파주 창비*, 2009.
- [21] 함인희, "사회구조적 변화와 가족의 적응 및 저항," *사회연구* 1, pp. 1-30. 2003.
- [22] Lull, J.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the social uses of television," *Communication Research*, 7(3), pp. 319-334. 1980
- [23] 홍석운, "가족커뮤니케이션 형태와 TV의 사회적 이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993
- [24] Lull, J. "How families select television program ; A mass-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broadcasting*, 26(4), pp. 801-811. 1982
- [25] Ritchie, L. D.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 epistemic analysis and conceptual reinterpretation." *Communication Research*, 18, pp. 548-565.1991
- [26] Ritchie, L. D. and Fitzpatrick, M. A.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measuring intrapersonal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mmunication Research*, 17(4), pp. 523-545. 1990.
- [27] 안정임, "가족TV시청의 사회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2004
- [28] Atkin, D. J., Greenberg, B. S., & Baldwin, T. F. "The Home Ecology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Parental Mediation and the New Video Environ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41 Mar, pp. 40-53. 1991
- [29] Chaffee, S. H., McLeod, J. M., & Atkin, C. K.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media us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4, pp. 323-340. 1971

- [30] Chaffee, S. H., McLeod, J. M., & Wackman, D. B.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adolescent political participation," In J. Dennis (Ed.), *Socialization to politics*, pp.349-364, NY: *Wiley& Sons*. 1973

#### 김 애 정 (金愛情)

2009년~ 2010: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언론광고학과 석사  
 관심분야 : 방송, 디지털방송, 멀티미디어, DMB, 아동

#### 남 종 훈 (南宗勳)



1992년 : 성균관대학교 학사  
 1994년 : Ohio University MA  
 2007년 : 고려대학교 박사  
 2000년~2001년: BT(British Telecom)  
 컨설턴트  
 2000년~2008년: 동신대학교  
 언론광고학과 교수

2008년 ~2009년: 한국방송학회 이사  
 2010년 ~2011년: 한국언론학회 이사  
 2008년~ 현 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관심분야 : 디지털방송, 멀티미디어, DMB 등